*때는 바야흐로 11월 29일 금요일… 010-7386-0851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것도 같은 번호로 두 번이나 ..!* (의심 가득)

*낯선 전화번호에 망설이다 미심쩍은 목소리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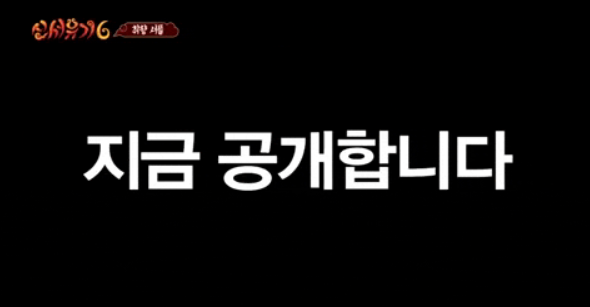
여보세요 ..??

‘어? 나예요! 김경원 교수!’



그렇다 교수님 전화번호가 바뀐 듯하다^ㅇ^ (다들 저장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57분 43초** 간의 전화통화 … 그 내용을



\*분량 많음 주의.

1. **공통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팀 단위 협업이 필수적. 기업 내에서도 데이터 분석 업무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이 함께 작업하며 이루어진다. 협업해야 하는 이유는,

1. 업무 복잡하다. 데이터 분석 업무는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단계를 포함하며,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기술과 전문성이 다르다. 한 명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치만 지식은 있는 게 유리. 그래야 소통 가능) 팀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팀 단위로 수행한 프로젝트 경험이 개인의 기술뿐 아니라 팀워크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는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이다.

1. 데이터 분석가, 사이언티스트끼리 서로 알아놓으면 좋다. 데이터 분석 분야는 아직 매우 좁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장기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팀 단위 협업 경험을 통해 서로 알아놓는 것이 유리하다.

Q.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극소수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 힘들어서?

A. 후자다. 해봐서 알겠지만 공부할 게 많다. 컴퓨터 알아야하고, 수학도 좀 알아야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분석 역량 있어야 하고, 도메인 지식도 파야되고 …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있고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인력이 중요하고 협업이 중요한 것이다.

* 따라서 서로 하고싶은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어느정도 타협을 봐서 공통 프로젝트를 하나 시도하는 것을 추천

1. **DEBA 3기를 직접 뽑았으면 한다.**

후배를 직접 뽑아서 가르쳐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다보면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가르쳐 보면 현실을 딱 알 수 있다.

그리고 채용을 직접 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도 인력, 협력을 해야하는 이유와 관련 있다. 너희와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알 텐데 우리 팀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과 네트워크를 쌓아서 함께 일하면 좋을 거 같은 지 직접 판단하여 사람을 뽑는 것이다.

* 모집 가이드 라인 만들어서 소그룹 직접 운영하는 경험 필요.

Q. 그런데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거 같다. 요즘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되게 핫한 분야여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문과이든 이과이든 많이 뛰어들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관련 동아리, 대외활동을 하며 스펙을 쌓는다. 그런데 누가(어떤 사람이) 뽑히는지를 모르겠다. 또 취업 공고를 보면 데이터 분석 직무,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를 뽑는 경우는 많이 없다. 수요는 없는데다 대부분 석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교수님은 이 분야에 사람이 많이 없고 항상 수요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학부생의 눈으로 봤을 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정작 취업 시장에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고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지도 잘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들 뭘 어떻게 더 해야 될 지 고민인 듯하다.

1. **3. 데이터 분석(사이언스) 관련 시장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진입 전략을 짜야**

나와 같은(김경원 교수님) 데이터 사이언스 포지션 자체는 인력 규모가 작다. 대부분 기업의 매출(이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인력을 쓴다. 그래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학부생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로 바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심) 데이터 분석을 메인으로 하는 포지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이나 직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완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채용공고의 특징을 얘기하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요즘 어떠한 분야 및 기업에서든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을 중요시하지만, 채용 공고에는 이를 별도의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로 ‘우대 사항’으로만 기재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기존 직무+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함께 기입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지원을 꺼려한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니즈를 공고에 명시하는 것인 기업 입장에서 기밀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기에 데이터 분석 역량이 채용 공고에서는 주요 요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서류와 면접에서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 기업이 면접 때 관련 역량에 대해 알아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 분석이 기본적인 역량으로 요구되는 흐름으로 가고있다.근 5년 안에, 마치 지금의 엑셀처럼, 데이터 분석이 기본적인 도구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채용 요건에 강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예를 들어, 물류나 유통 분야의 기존 포지션에 지원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물류 최적화나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후 역량과 경력을 쌓아 전문적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나아가는 전략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 현실적인 진입 전략: 원하는 분야(도메인)의 기존 직무 내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1. **지금은 ‘역량+근거’를 동시에 만들어야 할 시기.**

역량: 우리가 지금껏 하던 공부라 생각하면 된다. 강의를 보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역량을 쌓는 것.

근거: 우리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모전의 수상이력이나 논문 출간이 될 수 있겠다.

이젠 시간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 둘을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해온 것들을 실제 써먹을 수 있으려면 1년 간은 좀 빠듯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짧고 굴게 진행하는 게 좋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해보고 나에게 연락을 주길 바람 ~~